

# "잠녀의 역사성 · 사회문화적 가치 재조명"

등록 : 2006년 02월 16일 (목) 20:39:59  
최종수정 : 년 월 일 (월)

고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시상식후 기념촬영을 한 잠녀기획팀과 MBC PD수첩 팀.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김동민)가 주는 올해의 기획보도상 시상식(사진)이 16일 프레스센터 11층 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제주 잠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취합, 인류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민일보 대하기획 '제주잠녀'(팀장 김형훈 사회부장)가 지역부문 기획 보도상을 수상했다.

전국부문 기획 보도상은 '즐기세포 신화의 진실/왜 재검증을 요구했는가?'를 통해 전 국민의 시선을 끌어모았던 MBC 시사교양국 PD수첩팀이 받았다.

제주잠녀 기획팀은 김형훈 부장과 김대생 사진부 차장, 홍석준 사회부 차장대우, 고미 경제부 차장 대우로 구성됐으며 도내 자료는 물론 타 지역과 일본 등에 진출한 제주 잠녀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일본 아마와의 차이와 보존 방법 등을 면밀히 취재, 제주 잠녀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안에 대한 도민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동민 회장은 시상식에서 "흔히 알고 있는 잠녀의 존재와 그들의 매환을 참신한 기획력으로 보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하게 됐다"며 "축하말보다는 좋은 기획보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잠녀'기획은 지난달 16일 전국지방신문협회의 보도대상 시상식에서 취재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